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작용과 성별차이

전신현* · 이성식**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그 영향이 남녀 청소년에게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는데 학교폭력피해가 자긍심을 낮추고 그것을 이유로 우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 성별차이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의 작용이 매개작용 이외에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다뤘다. 그리고 아울러 자긍심외에 사회지지 요인들의 완충효과도 살펴보았고 그러한 완충효과들의 성별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우울에의 영향에서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긍심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완충작용은 남성에게서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자긍심의 완충효과보다는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지지의 완충조절작용이 남성보다는 더 큰 것을 제시해 남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주제어: 학교폭력피해, 우울, 자긍심, 사회지지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제1저자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lss824@ssu.ac.kr

I. 서 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의 주요 이슈중 하나가 되어왔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놀림에서부터, 폭행, 금품갈취, 집단폭행과 따돌림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근래에는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비록 신체형 폭력은 아니지만 단순한 욕설에서부터 집단대화에서의 따돌림 형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국내연구들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과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도 했고(최운선, 2005; 김선애, 2007), 누가 피해를 당하는지의 피해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원인을 파악하여 왔다(노성호, 이성식, 2003; 정하은, 전종설, 2012).

기존의 학교폭력 피해연구는 학교폭력피해를 소위 종속변인으로 다루는 연구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폭력피해를 독립변인으로 다룸으로써 과연 학교폭력피해자의 피해의 결과와 고통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Hawker & Boulton, 2000; Seals & Young, 2003; Flannery, Singer & Wester, 2004; 이은희, 손정민, 2011). 이 연구는 특별히 학교폭력피해가 여러 정신건강의 문제 중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피해청소년은 피해로 말미암아 무기력, 슬픔, 외로움 등의 우울을 경험하다가 심지어 자살을 한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Seals & Young, 2003; Taylor, Sullivan & Kliewer, 2013; Hochstetler, DeLisi, Johnson & Johnson, 2014; Rodríguez-Hidalgo, Ortega-Ruiz & Monks, 2015), 국내에서는 몇 연구(김재엽, 정윤경, 2007; 조운오, 2013)이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그 이유 등을 충분히 엄밀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가 남녀 청소년에게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학교폭력피해는 과연 남성에게서 혹은 여성에게서 우울을 유발하는가? 그리고 이 연구는 아울러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룰 것이고, 자긍심의 매개작용이 남녀 별로 어떻게 다를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자긍심은 매개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피해가 자긍심을 낮추고 우울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긍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울에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 있어 자긍심의 매개작용이외에 완충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완충요인들로 사회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자긍심 이외에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살펴봄에 있어 그 영향의 남녀차이이외에, 자긍심의 매개작용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완충작용도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서로 다른 시점의 패널자료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해 그 관계를 다루려고 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피해 남녀 청소년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작용

학교폭력을 비롯한 범죄피해는 생활사건이자 강력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서 피해자의 신체피해이외에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별히 피해 당사자의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Seals & Young, 2003; Hochstetler et al., 2014).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에서도 생활사건이나 긴장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친구들의 괴롭힘 등 학교폭력피해를 포함한 범죄피해는 그와 같은 부정적 자극의 하나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Hay & Evans, 2006; Moon, Blurton & McKluskey, 2008).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로 김예성과 김광혁(2008)은 초등학교 대상 연구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우울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고, 조윤오(2013)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청소년비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피해는 왜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 등 자아손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자긍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자신감으로 청소년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Michaels, Barr, Roosa & Knight, 2007). 그런데 학교폭력피해는 자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학교폭력에서 신체피해시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입는 경우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자신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와 같은 낮은 자긍심은 정서적 문제나 행동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어(Leary, Schreindorfer & Haupt, 1995), 여러 문제 중에서도 우울과 높은 연관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자긍심이 높으면 어려운 일로 인한 근심, 걱정을 잘 극복하고, 적절한 해결방안과 전략을 찾으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울의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주관적 안녕감이 높지만, 그 반면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우울을 더 경험한다고 밝혀오고 있다(Dixon & Kurpius, 2008; Orth, Robins & Roberts, 2008; Chen, Chiu & Huang, 2013; Sowislo & Orth, 2013; Lee, Dickson, Conley & Holmbeck, 2014). 국내연구에서 이은희, 최태산과 서미정(2000)은 남녀 고등학생 대상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스트레스, 학교폭력보다도 자긍심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본다면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낮은 자긍심이 우울을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에서 여러 연령대에서 조사되어 실제로 10대 초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나(Taylor et al., 2013), 11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대상 연구에서(Rodriguez-Hidalgo et al., 2015), 그리고 대학생대상의 연구에서도(Benas & Gibbs, 2007)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춤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완충작용

앞서 논의에서처럼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은 그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긍심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긍심이 조절변인으로 완충역할을 한다는 근거는 기존 스트레스 연구에서 주장되어 왔다. 기존 정신건강의 연구에서는(Pearlin, 1989; Turner, Wheaton & Lloyd, 1995) 생활사건이나 일상스트레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긍심이 조절변인으로서의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았는데, 즉 높은 자긍심은 그와 같은 사건과 일상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자긍심이나 자기효능감, 통제능력이 높은 사람은 생활사건이나 일상생활의 만성긴장의 정신건강의 영향에서 대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Pearlin, Elizabeth, Morton & Joseph, 1981). 즉 자긍심 등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와 같은 긴장의 우울에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의 청소년이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없을 때 그들은 정신건강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지만 자긍심과 통제력이 높아 피해극복의 자신감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 부정적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긍심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작용 이외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는 개인의 자긍심의 정도에 따라 달라, 자긍심이 높을 때는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을 완충해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자긍심이 낮을 때에는 그 관계가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조절요인으로서 자긍심이외에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개인의 능력으로 자긍심과는 달리 사회지지는 대표적 환경요인이 된다. 사회지지만 가족성원, 친척, 친구, 선생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는 재정상, 정보상, 혹은 정서상의 지지를 말하는데, 사회지지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의 우울에의 영향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Jackson, 1992; Wright, Botticello & Aneshensel, 2005). 이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사회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우울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Ozer, 2005). 하지만 국내

에서 김재엽과 정윤경(2007)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조윤오(2012)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대상의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교사관계는 완충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3. 성별차이

학교폭력피해는 남녀 모두에서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피해는 남녀 모두에게 자괴심을 낳출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자괴심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과의 관계가 높다고 주장된다(Moksnes & Espnes, 2013). 그러한 점에서 보면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학교폭력피해는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우울을 더 유발할 수 있다. 긴장이론가들에 따르면 학교폭력피해를 포함하여 일상긴장의 부정적 감정에의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긴장으로부터의 부정적 감정은 남녀간에 서로 달라 남성은 긴장으로부터 화와 같은 공격적 감정을 보이지만, 여성은 긴장을 내면화하여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된다(Broidy & Agnew, 1997; Piquero & Sealock, 2004; Manasse & Ganem, 2009; 이정환, 이성식, 2014).

그 성별차이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괴심의 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괴심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해, 학교폭력피해시 자괴심이 낮아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의 성역할은 독립적이기보다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자아구성도 다소 차이가 있고 폭력피해와 같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자아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Cross & Madson, 1997; Cambren, Acitelli & Pettit, 2009). 그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친구들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자괴심 저하가 있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 여성은 학교폭력피해시 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학교폭력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자긍심이 낮아지게 된다. 학교폭력피해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귀인방식에 따라 자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책을 하고 자아손상을 가져오지만(Piquero & Sealock, 2004; Graham, Bellmore & Mize, 2006) 자기가 아닌 타인에 귀인하는 경우 가해자나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다(Yeung & Leadbeater, 2007). 여성은 남성보다 학교폭력피해시 자기에 귀인하고 그럼으로 학교폭력피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서 더 자아에 영향을 주고 우울을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 일부 연구에서 보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이 매개변인이 아니라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Grill & Ollendick, 2002; Soler et al., 2013). 즉 여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시 자긍심이 낮아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지만, 남성은 자긍심이 매개변인이 아니라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으로서, 즉 학교폭력피해시 자긍심이 높으면 우울을 경험하지 않지만 자긍심이 낮으면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왜 남성의 경우 그런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긍심의 완충효과는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듯이 또 다른 완충요인으로 사회지지의 효과도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인간관계가 중요한 여성에게 주위 사람들의 사회지지의 완충효과는 남성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여성은 주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또한 그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부정적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주위 사람들과 맺는 유대와 애착관계는 매우 높고, 역할정체성상 그들로부터 얻는 정서상의 지지는 매우 높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교폭력피해 등 여러 사유로 고통을 받게 될 경우 부모, 형제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도움으로 크게 위안을 받는다(Turner & Marino, 1994; Umberson, Chen, House, Hopkins & Slaten, 1996).

여성들은 스트레스나 생활사건의 경우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크게 위안을 받지만, 남성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존하여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처한다고 주장된다(Ptacek, Smith & Dodge, 1994).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화된 남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의존할 경우 자존심에 크게 손상이 된다고 까지

믿는 경우가 있다(Belle, 1987). 따라서 남성들은 부정적 경험을 사회지지를 통해 극복할 가능성은 낮고 그와 달리 자긍심의 내적 능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자긍심의 완충역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청소년대상의 최미례와 이인혜(200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일상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의 역할을 남녀로 나누어 각기 살펴보았는데, 자긍심의 완충효과는 남자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 남녀에 따라 다소 다르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사회지지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사회 지지인가에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청소년대상 연구를 보면 예컨대 부모의 지지와 같은 요인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보다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Avison & McAlpine, 1992; Windle, 1992), 국내의 이은희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지지의 완충효과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발견되었음을 제시했다. 학교폭력피해의 부정적 영향력의 완충에 있어 여성에게는 친구나 학교선생의 지지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igby, 2000; Loukas & Pasch, 2013). 그런데 부모의 지지는 여성에게 학교폭력피해의 완충역할을 하지만 남성에게서는 부모보다는 학교친구나 선생의 지지가 중요하여 남녀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Davidson & Demaray, 2007).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부모의 지지는 남성에게서, 친구의 지지는 여성에게 완충작용을 한다는 결과가 있어(Morin, Bradshaw & Berg, 2015)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III.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에게 얼마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학교폭력피해는 남녀 모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기존 논의에 근거해 본다면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학교폭력

피해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을 더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과연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그것을 이유로 우울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용에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으로 자긍심외에 사회지지의 영향을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학교폭력피해에서의 완충역할을 다루고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초해 볼 때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서 자긍심의 매개작용은 여성에게서, 그리고 자긍심의 완충작용은 남성에게서 더 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서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관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 혹은 조절변인으로서의 작용이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사회지지의 완충작용도 남녀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는데,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피해의 우울에의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자긍심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남녀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조절변인으로 완충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남녀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지지가 조절변인으로 완충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남녀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초등학생 4학년 2,3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 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성장한 시기 특히 이 학생들이 중2가 되는 5차 시기를 우울이 최종 종속변인이 되는 시점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유효응답자 2,092명을 분석하기로 한다.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피해는 4차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며 자긍심과 사회지지 또한 4차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학교폭력피해는 지난 1년 동안의 피해를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4차 시점의 자료이지만 자긍심과 사회지지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피해는 친구들의 놀림과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돈이나 물건 뺏기기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의 지난 1년간의 피해 여부를 다루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자긍심은 Rosenberg(1965)의 측정도구로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 10개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838$).

사회지지를 위해서는 이 자료는 사회지지를 직접 측정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부모, 친구,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다룬 문항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방식 문항들 중 부모의 애정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 네 문항을($\alpha=.830$), 친구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의 측정항목(민병수, 1991) 중 교우관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의 다섯 문항을($\alpha=.612$), 교사관계는 역시 학교생활적응의 측정항목 중 교사관계에 해당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다섯 문항을($\alpha=.850$),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나는 우리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 등의 여섯 문항을($\alpha=.707$) 사용한다. 이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인으로 다룰 우울은 이 자료에서의 문항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김광일, 김재황과 원호택(1984)의 우울척도를 수정한 문항으로 “기운이 별로 없다” 등의 10개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905$)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을, 그리고 가구의 연간소득(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들은 청소년의 부모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먼저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응답자의 사회배경변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평균값은 1-5범위에서 남성은 3.053, 여성은 3.175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남성은 2.827, 여성은 2.957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았다. 가구의 연간소득은 100만단위에서 평균값이 남성은 약 4천5백만원, 여성은 4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남성		여성		범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교육	3.053	1.082	3.175	1.051	1-5
모교육	2.827	.982	2.957	1.002	1-5
소득	4585.159	2493.636	4753.603	3024.500	200-500000
학교폭력피해	.050	.299	.063	.343	0-5
자긍심	32.062	4.619	30.745	4.557	10-40
부모관계	12.842	2.259	12.471	2.335	4-16
친구관계	15.580	2.244	15.659	1.954	5-20
교사관계	14.836	3.279	14.451	3.204	5-20
지역관계	17.886	3.087	16.969	3.070	6-24
우울	17.042	5.479	18.579	5.955	10-40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피해는 전체 평균값이 .056으로 낮게 나왔는

데, 남성이 .050, 여성이 .063으로 여성의 피해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긍심의 평균값은 10-40범위에서 남성이 32.062, 여성이 30.745로 나타났고, 사회지지
 의 변인으로 부모관계는 4-16범위에서 남성이 12.842, 여성이 12.471, 친구관계는
 5-20범위에서 남성이 15.580, 여성이 15.659, 교사관계는 5-20범위에서 남성이 14.836,
 여성이 14.451, 지역주민들간의 관계는 6-24범위에서 남성이 17.886, 여성이 16.969
 로, 자긍심이나 사회지지의 값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우울은 10-40범위에서 평균값이 남성이 17.042, 여성이
 18.579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 점수가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여성이 학교폭력피해는
 높고, 자긍심과 사회지지는 낮으며, 우울은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로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학교폭력피해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여성의 경우
 학교폭력피해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 사회배
 경변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우울			
	남성		여성	
	b	β	b	β
부교육	.145	.028	-.239	-.043
모교육	.142	.025	-.279	-.047
소득	-.0001	-.043	.0004	.026
학교폭력피해	.925	.052	1.986**	.101
R제곱	.005		.017	
F값	1.197		3.534**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것이 자긍심을 매개로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 앞서 표 2에서 자긍심 변인을 추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다. 그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자긍심은 우울에 $p<.001$ 수준에서 높게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자긍심이 낮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며, 자긍심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을 제시한다. 이때 여성의 경우 앞서 표 2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미했던 학교폭력피해의 영향력이 자긍심을 추가했던 표 3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자긍심을 매개로 작용한 것을 짐작케 한다. 실제 경로분석을 보면 여성의 경우 그림 1-2에서와 같이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도 본래 학교폭력피해와 우울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림 1-1에서와 같이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인다.

표 3

학교폭력피해 및 자긍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우울			
	남성		여성	
	b	β	b	β
부교육	.158	.031	-.115	-.021
모교육	.230	.041	-.271	-.046
소득	-.00001	-.024	.00001	.024
학교폭력피해	.326	.018	1.067	.054
자긍심	-.410***	-.347	-.521***	-.406
R제곱	.124		.179	
F값	25.191***		35.018***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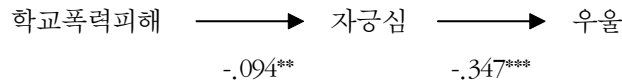


그림 1-1. 학교폭력피해, 자긍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결과(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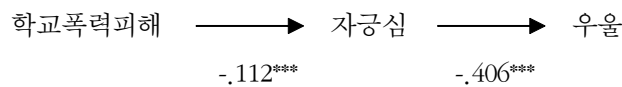


그림 1-2. 학교폭력피해, 자긍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결과(여성)

표 4는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을 알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으로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 및 사회지지와 상호작용효과를 결과를 남녀별로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긍심이 $p<.001$ 수준에서, 부모관계가 $p<.05$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고 나머지 사회지지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학교폭력피해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과의 상호작용효과가 $p<.05$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본래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부(-)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결과는 학교폭력피해의 남성이 자긍심이 낮을 때 우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긍심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부모관계가 $p<.01$ 수준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p<.01$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던 것에 반해 여성에서 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그 대신 여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물론 다른 사회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학교폭력피해에서 여성의 경우는 자긍심보다는 사회지지가 완충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학교폭력피해의

여성은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남성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사회지지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미약했다. 대신 오히려 남성의 경우는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했는데 이는 학교폭력피해의 남성이 친구와의 관계가 좋거나 지지가 있을 때 더 우울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4

학교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와와의 상호작용효과의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우울			
	남성		여성	
	b	β	b	β
부교육	.197	.038	-.094	-.017
모교육	.259	.046	-.181	-.031
소득	-.00001	-.019	.00001	.014
학교폭력피해	.111	.019	.018	.014
자긍심	-.334***	-.283	-.423***	-.329
부모관계	-.189*	-.077	-.262**	-.104
친구관계	-.132	-.054	-.348**	-.116
교사관계	-.014	-.008	.089	.049
지역관계	-.016	-.009	.031	.016
피해*자긍심	-.443*	-.134	.272	.087
피해*부모	.749	.079	.088	.012
피해*친구	.794*	.118	-.835*	-.102
피해*교사	.502	.089	.089	.015
피해*지역	-.145	-.144	.162	.052
R제곱	.149		.208	
F값	11.044***		14.877***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V. 결 론

이 연구는 학교폭력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학교폭력피해와 그 결과로서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에게 있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살펴보고 싶었다. 학교폭력피해가 왜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자긍심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고, 또한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의 작용이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지지도 완충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매개와 조절변인들의 작용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성별차이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긍심의 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자긍심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작용은 남성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물론 경로분석에서 보면 남녀 모두에서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본래부터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력을 나타낼뿐 그 영향력이 매개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학교폭력피해는 자긍심을 낮추고 자긍심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경우와 달리 남성에게서는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긍심이 오히려 조절변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학교폭력피해와 자긍심의 우울에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나타나 학교폭력피해의 남성이 자긍심이 높을 때 우울을 덜 경험하지만 자긍심이 낮을 경우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는 자긍심보다는 사회지지의 완충작용이 나타나 학교폭력피해와 친구관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는데, 학교폭력피해의 여성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피해의 결과가 남녀 청소년에게서 서로 다르며 아울러 그 이유와 또한 대응전략도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정책적 제시에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달라 학교폭력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해를 끼쳐 여성 피해자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응전략도 상이하게 접근해야 해

서, 남성은 자긍심이, 여성은 주위 친구들의 지지가 피해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할 수 있는 점에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자긍심 회복의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교우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로 지지가 될 수 있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여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다루기 위해 패널자료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 자료가 2차 자료라는 점에서 변인의 측정에서 충분한 문항들을 다루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그 분석결과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과 우울의 관계를 다룬 점에서 이를 청소년 전반에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그 문항들을 포함시켜 다루는 작업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황,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선애 (2007). 가정, 학교, 친구 관련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101-126.
- 김예성, 김광혁 (2008).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 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아동학회지**, 29(4), 213-229.
- 김재엽, 정윤경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 5-28.
- 노성호, 이성식 (2003).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피해자연구**, 11(2), 27-5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손정민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2), 149-171.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정환,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긴장 이론의 검증과 그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5(4), 137-158.
-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조운오 (2012).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교사 및 부모관계 조절효과. **피해자학연구**, 20(2), 233-255.
- 조운오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증세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2), 363-383.

- 최운선 (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elle, D. (198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moderators of stress*. In R. C. Barnett, L. Biener, & G. K. Baruch (Eds.). New York: Free Press.
- Benas, I. S., & Gibb, B. E. (2007).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21(2), 107-116.
- Broidy, L. M., & Agnew, R. (1997).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275-306.
- Cambron, M. J., Acitelli, L. K., & Pettit, J. W. (2009). Explaining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interpersonal contingent self-esteem perspective. *Sex Roles*, 61, 751-761.
- Chen, S. J., Chiu, C. H., & Huang, C. J. (2013).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a Taiwanese population: A meta-analysi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4), 577-58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avidson, L. M., & Demaray, M. K. (2007).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between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distress from bullying. *School Psychology Review*, 36(3), 383-405.
- Dixon, S. K., & Kurpius, S. E. R. (2008). Depression and college stres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Do mattering and self-esteem make a difference?.

-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9, 412-424.
- Flannery, D. J., Singer, M. I., & Wester, K. L. (2004).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59-573.
- Graham, S., Bellmore, A. D., & Mize, J. (2006).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their co-occurrence in middle schoo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363-378.
- Grills, A. E., & Ollendick, T. H. (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1), 59-68.
- Hawker, D. S. J.,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441-455.
- Hay, C., & Evans, M. (2006). Violent victimization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Examining predictions fro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61-274.
- Hochstetler, A., DeLisi, M., Johnson, G. J., & Johnson, W. R. (2014). The criminal victimization-depression sequela: Examining the effects of violent victimization on depression with a longitudinal propensity score design. *Crime and Delinquency*, 60(5), 785-806.
- Jackson, P. B. (1992). Specifying the buffering hypothesis: Support, strain, and depress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363-378.
- Leary, M. R., Schreindorfer, L. S., & Haupt, A. L. (1995). The role of low self-esteem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hy is low self-esteem dysfunctional?.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14, 245-266.
- Lee, C., Dickson, D. A., Conley, C. S., & Holmbeck, G. N. (2014). A closer look at self-estee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y: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cross the transition to

- colle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6), 560-585.
- Loukas, A., & Pasch, K. E. (2013). Does school connectedness buffer the impact of peer victimization on early adolescents' subsequent adjustment problem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Health*, 41, 245-266.
- Manasse, M. E., & Ganem, N. M. (2009). Victimization as a cause of delinquency: The role of depression and g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4), 371-378.
- Michaels, M. L., Barr, A., Roosa, M. W., & Knight, G. P. (2007). Self-esteem: Assess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a multi-ethnic sample of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 269-295.
- Moksnes, U. K., & Espnes, G. A. (2013).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gender and age as potential moderators. *Quality of Life Research*, 22(10), 2921-2928.
- Moon, B., Blurton, D., & McKluskey, J. D. (2008).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key strain characteristics on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54, 582-613.
- Morin, H. K., Bradshaw, C. P., & Berg, J. K. (2015). Examining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djustment problems in adolescents: The role of connectedness and parent engagement. *Psychology of Violence*, 5(4), 422-432.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695-708.
- Ozer, E. J. (2005). The impact of violence on urban adolescents: Longitudinal effects of perceived school connection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2), 167-192.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56.
- Pearlin, L. I., Elizabeth, G. M., Morton, A. L., & Joseph, T. M. (1981). The stress

-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iquero, N. L., & Sealock, M. D. (2004). Gender and general strain theory: A preliminary test of Broidy and Agnew's gender/GST hypotheses. *Justice Quarterly*, 21, 125-159.
- Ptacek, J. T., Smith, R. E., & Dodge, K. L. (1994).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with 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421-30.
- Rigoy, K. (2000).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school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3, 57-68.
- Rodríguez-Hidalgo, A. J., Ortega-Ruiz, R., & Monks, C. P. (2015). Peer-victimisation in multi-cultural contexts: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n self-esteem and emotions. *Psicología Educativa*, 21(1), 3-9.
- Rosenberg, M. (1965).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 135-152.
- Seals, D., & Young, J. (2003). Bullying and victimization: Prevalence and relationship to gender, grade level, ethnicity, self-esteem, and depression. *Adolescence*, 38(152), 735-747.
- Soler, L., Kirchner, T., Paretilla, C., & Forns, M. (2013). Impact of poly-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The mediator and/or moderator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13), 2695-2712.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 213-240.
- Taylor, K. A., Sullivan, T. N., & Kliewer, W. (2013). A longitudinal path analysis of peer victimization, threat appraisals to the self, and aggressi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Youth Adolescence*, 42, 178-189.
- Turner, R. J., & Marino, F. (1994). Social support and social structure: A descriptive epidemiolog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193-212.

- Turner, R. J., Wheaton, B., & Lloyd, D. A. (1995). The epidemiology of social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04-125.
- Umberson, D., Chen, M. D., House, J. S., Hopkins, K., & Slaten, E. (1996).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re men and women really so differ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837-57.
- Windle, M.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22-530.
- Wright, R. G., Botticello, A. L., & Aneshensel, C. S. (2005). Socioeconomic context,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multilevel investig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115-126.
- Yeung, R. S., & Leadbeater, B. J. (2007). Does hostile attributional bias for relational provocations mediate the short-term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pre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973-983.

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Jun, Shinhyun* · Lee, Seong-Sik**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differs according to whether the victims are male or female students. The study also tested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may be mediated by self-esteem and whether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decreases self-esteem, and in turn increases depr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gender.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s whether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That is, this study tests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may be buffered by high levels of self-esteem. This study also tests whether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may be buffered by high levels of social support. This study also tests the differences in those effects according to gender. Using data from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tudy, it was revealed that several hypotheses are supported and there are indeed noticeable differences attributable to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is greater on females than on males and its effect is mediated by self-esteem in the case of females.

* Professor,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However, it is revealed that for males,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s significantly negative. Furthermore, for females,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s significantly negative.

Key Word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투고일: 2017. 3. 8, 심사일: 2017. 5. 2, 심사완료일: 2017. 5. 12